

2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나스닥 반등..다우는 0.8%↓ [다우: 7936.75pt (-0.80%)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반면 금융업종 불안으로 다우 지수는 8,000선을 깨고 내려섬. 다만 1월 제조업지표가 뜻밖에 예상치를 상회, 오후들어 낙폭을 크게 줄임. 특히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BoA가 급락세를 보이며 지수에 부담을 준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대형 기술주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 눈길을 모음.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기술주 반등..바비 인형 마텔은 급락세	이날 뉴욕증시에선 기술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 또한 금융전문지인 배런스(Barron's)가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주가가 내년 중 25달러(마감가 1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여 보험사인 하트포드파이낸셜(Hartford Financial)이 15% 가까이 급등. 반면 세계 최대 장난감 메이커인 마텔(Mattel)은 작년 4분기 바비 인형의 판매감소 여파로 순이익이 46%나 급감했다는 소식으로 16%대의 하락률을 나타냄.
BoA 경영진 물갈이 위협 속에 급락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9%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 하락을 이끌었음. 주주들이 주총에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것이란 소문이 악재로 작용하였으며 구제자금을 받은 처지에서 美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후원하는 호화 이벤트를 개최해 비판을 받은 점도 부담.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은행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이들의 부실도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도, BoA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됨.
ISM 제조업 지수 `뜻밖의 증가세`	미국의 제조업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공급관리자협회(ISM)의 1월 제조업지수가 전월 32.9에서 35.6으로 상승. 이 지수는 50 미만일 경우 제조업 경기위축을 의미하지만, 월가의 당초 컨센서스(블룸버그통신 집계)인 32.5을 상회하며 투자심리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예상치 범위 내에 들면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음.
유가 `2주 최저`..`美 지표악화`→수요위축 우려↑ [WTI: \$40.08 (-\$1.60)	국제유가가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수요 위축 우려가 고조되면서 하락.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수는 경기후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었고, 엑손 모빌 등 미국의 대형 석유사들이 포함된 미국 철강 노조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유가 하락을 부추김.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하락 마감... 실적·소비 둔화 원인 지목	유럽 주요증시가 2일 하락한 가운데 거래를 마감. 하락세로 개장한 유럽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의 소비 지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겹치면서 하락함.
獨, 은행국유화. 민간지분 강제매입 검토	독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국유화와 민간 지분의 강제 매입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 현재 재무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국유화 이전 2주간의 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출해 강제 매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모색하고 있음.
日 작년 10~12월 경제성장률, 연율 -11.4%	지난해 10~12월(3·4분기) 일본의 경제가 마이너스 11.4%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 2일 7개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3.0%, 연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1.4%가 될 것으로 보임.
1월 車판매 35%급감 GM대우·쌍용차 반토막 이상	2일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5사의 1월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7만3,537대, 해외 23만9,188대 등 총 31만2,725대가 판매돼 작년 동월대비 34.7%감소. 이 가운데 국내판매는 작년 1월(9만6,689대)대비 23.9%, 해외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38만2,315대)에 비해 37.4% 각각 감소.
1월 외환보유액 2,000억 방어	한국이 지난달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선을 방어하였으며 이는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증가.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2009년 1월말 외환보유액(이하 보유액)'을 보면 1월말 현재 보유액은 2,017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2,012억2,000만 달러보다 5억2,000만 달러 늘었음.
1월 수출 '쇼크' - 33% 사상 최대폭 감소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통관 기준)은 216억9,2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감소. 정부가 월별 수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7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